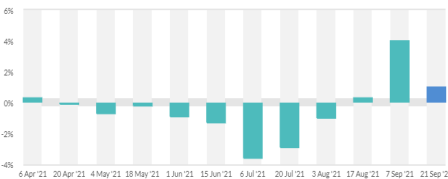




[가격동향] GDT 가격 3회 연속 상승세

- 공급량은 감소한 반면 일부 국가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

Change in GDT Price Index



Summary of Results

Number of Winning Bidders	112	Number of participating bidders	
Number of Bidding Rounds	14	Quantity sold (MT)	175
Duration of Trading Event (hours:mins)	3:07	Minimum Supply (MT)	22,950
Minimum Supply (MT)	22,950	Maximum Supply (MT)	27,495
Maximum Supply (MT)	27,495		24,476

지난 9월 21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1% 오르며 2회 연속 상승했다. 가격지수 또한 1,229포인트로 전장대비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지분유가 톤당 3,777달러(약 447만원)로 2.2%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탈지분유도 0.9% 오른 톤당 3,302달러(약 391만원)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버터는 1.9% 하락하며 톤당 4,857달러(약 575만원)를 기록했고, 체다치즈도 톤당 4,274달러(약 506만원)로 1.2% 떨어지며 5회 연속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일부 품목의 공급량이 줄어든 반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수입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출처 : globaldairytrade.info, 9월 21일 >

[낙농생산] 말레이시아, 원유 자급률 향상 위한 프로젝트 박차

- 오는 2023년까지 국내 원유생산량 11% 증가 목표



말레이시아가 국내 원유 자급률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최근 말레이시아 조호르 주정부는 동해안 개발지구(ECERDC)와 협력해 오는 2023년까지 약 83만평의 대지에 목장을 설립하고 연간 510만 리터의 원유를 생산해 국내 원유생산량을 11% 증가시키고 100여개의 일자리와 30개의 농업 사업체를 창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농업 활성화 및 식품 생산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원유 생산은 물론 가축 사육부터 사양관리 및 유가공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주요 식품 생산 허브로서 유제품 등 식품 수입을 줄여 국내산 농산물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와 사업체를 창출함으로써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9월 20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